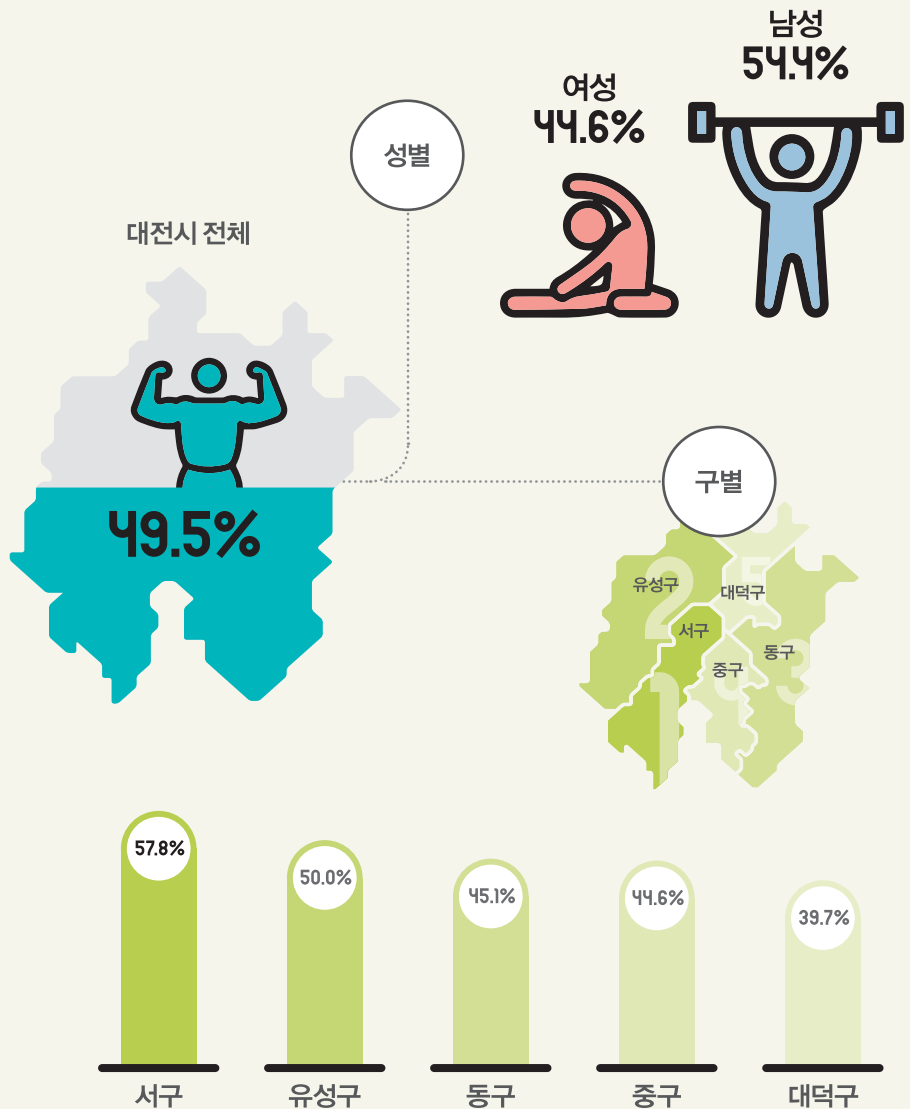




‘건강하다’고 생각하는 대전시민의 비율 여성 44.6% 남성 54.4%

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하는 지역사회건강 조사에 따르면 2016년 대전시민의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은 49.5%로 전년 (48.2%) 대비 1.3%p 상승했으며, 17개 시·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. 성별로 살펴보면 대전시민 중 여성의 44.6%, 남성의 54.4%가 본인의 건강수준을 ‘매우 좋다’ 또는 ‘좋다’고 응답해 건강수준을 높게 평가한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9.8%p 낮았다. 대전시 자치구별 건강수준 인지율은 서구(57.8%)가 5개 자치구 중 건강하다고 느끼는 구민이 가장 많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. 이어서 유성구(50.0%), 동구(45.1%), 중구(44.6%) 순이며, 대덕구는 39.7%로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이 가장 낮았다.

대전시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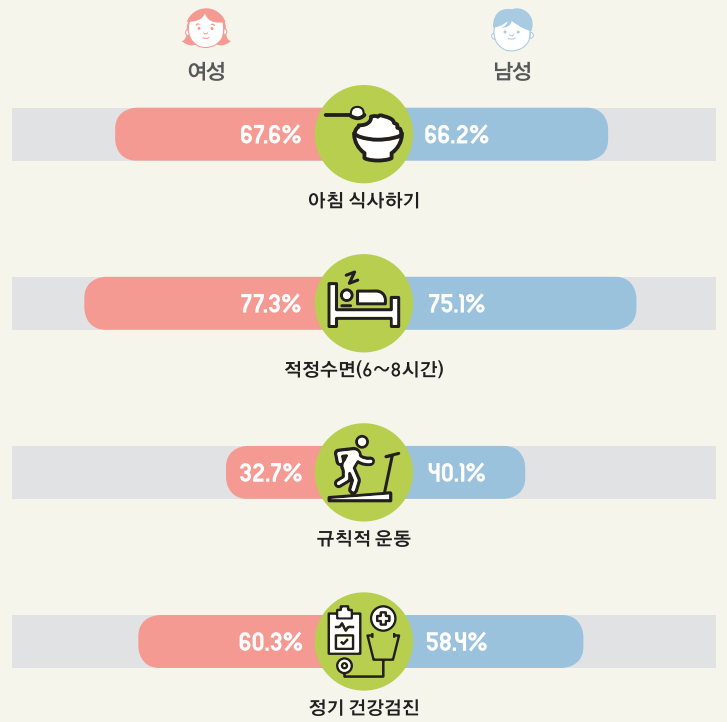
*조사기간: 2016년 8월 16일~10월 31일
 *만 19세 이상 인구 기준임.
 *척도는 매우 좋음, 좋음, 보통, 나쁨, 매우 나쁨 등 5가지로 구분됨.
 *주관적 건강수준을 '매우 좋음' 또는 '좋음'에 응답한 사람의 비율(%)로 정의
 = 주관적 건강수준을 "매우 좋음" 또는 "좋음"에 응답한 사람의 수×100/조사대상 응답자 수
 *해당 지역 모집단의 성·연령별 등의 인구집단 특성을 보정하지 않은 통계치로 해당 연도 및 지역의 인구 구성 비를 그대로 반영하여 산출된 결과값인 조율치 사용함.
 *출처: 질병관리본부, 『2008-2016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』

대전여성 '규칙적 운동 실천율' 남성보다 7.4%p 낮아

2016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대전시 여성과 남성의 평소 건강관리 실천 여부를 살펴보면, 여성의 77.3%, 남성의 75.1%가 '6~8시간의 적정 수면'을 한다고 응답해 여성과 남성 모두 4가지 건강관리 범주 중 실천율이 가장 높았다. '아침 식사'를 실천하는 여성 67.6%, 남성 66.2%, '정기 건강검진'을 받고 있는 여성 60.3%, 남성 58.4%로 상대적으로 '아침 식사하기', '적정수면', '정기 건강검진'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실천율이 높았다. 반면 여성의 32.7%만이 '규칙적 운동'을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, 이는 남성(40.1%)과 비교해서 7.4%p 낮았다.

*조사기간: 2016년 5월 18일~6월 2일
*만 13세 이상 인구 기준임.
*출처: 통계청(2016), 사회조사

대전시 건강관리 실천 여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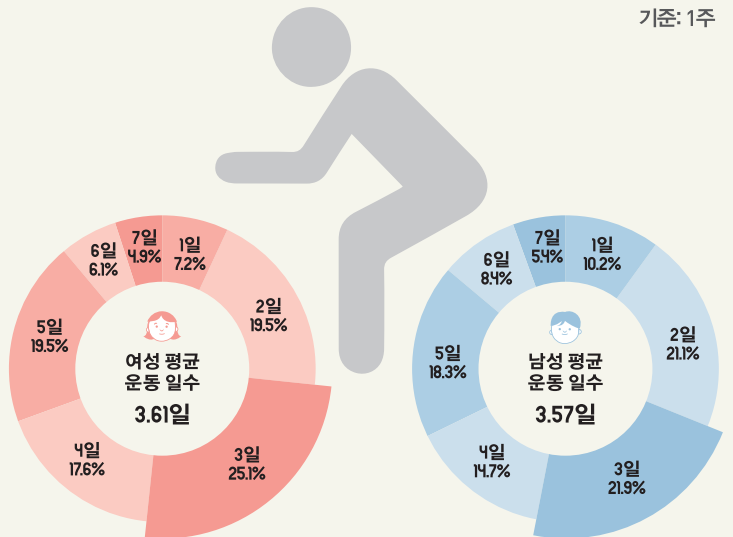
대전시민 '일주일 평균 운동 일수' 여성 3.61일, 남성 3.57일

대전시민에게 일주일 동안 실시한 규칙적인 운동 횟수를 묻는 문항에 여성의 25.1%, 남성의 21.9%가 '3일' 운동한다고 응답했다. 이어 '2일'(여성 19.5%, 남성 21.1%), '5일'(여성 19.5%, 남성 18.3%), '4일'(여성 17.6%, 남성 14.7%) 순으로 높았으며, 여성은 일주일 평균 3.61일, 남성은 3.57일을 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1회 운동을 실시할 때 몇 분 정도 하는지 조사한 결과, '30분~1시간 이하'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 52.4%, 남성 52.8%로 가장 높았으며, '30분 이하'(여성 37.5%, 남성 27.2%), '1시간 초과~2시간 이하'(여성 10.0%, 남성 18.9%) 순이며, 평균 운동 시간은 여성 47.95분, 남성 56.60분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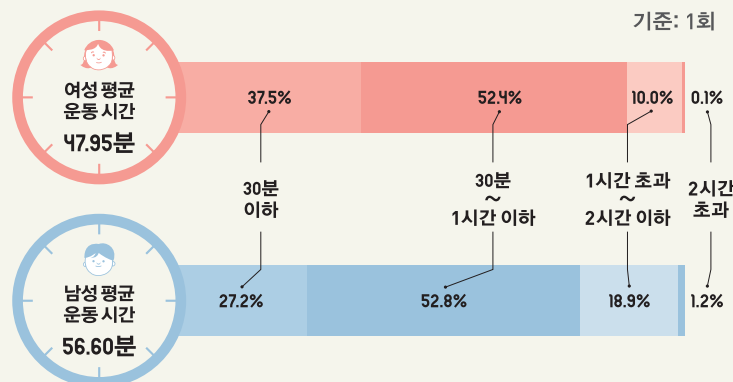
*조사기간: 2016년 9월 1일~9월 23일
*만 15세 이상 인구 기준임.
*조사시점을 기준으로 '운동을 한다'고 한 응답자에게 지난 일주일 동안 숨이 차거나 약간의 땀이 나는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묻는 문항으로 운동으로서 걷기는 해당되나 일상생활에서의 걷기는 제외함.
*출처: 대전광역시(2016), 『2016 대전의 사회지표』 p308-309, 2016 대전시 사회조사 활용

대전시 규칙적인 운동 일수 및 시간

기준: 1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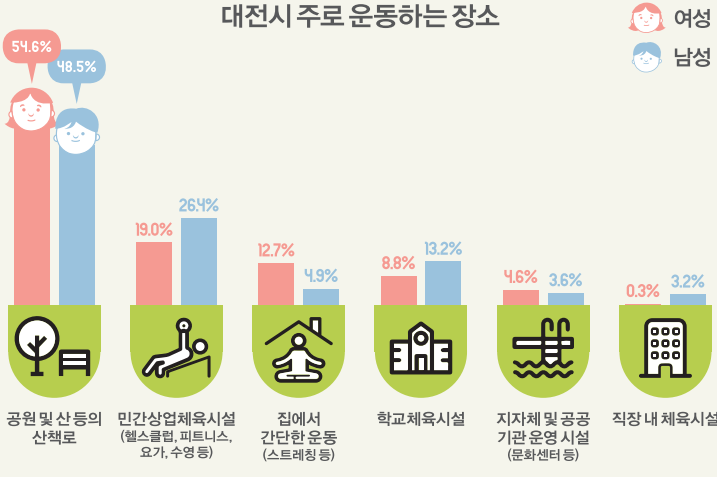


기준: 1회



대전시민 주로 '공원 및 산 등의 산책로'에서 운동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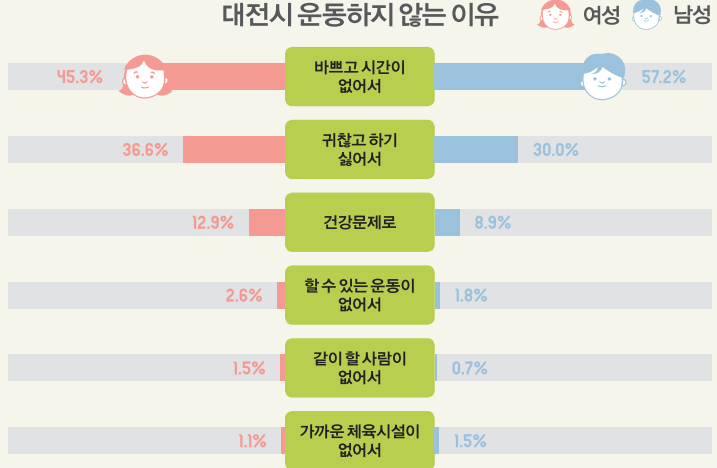
대전시민이 주로 운동하는 장소를 보면, 여성은 공원 및 산 등의 '산책로'(54.6%)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, 그 다음으로 헬스클럽, 요가, 수영 등 '민간상업체육시설' 19.0%, '집에서 간단한 운동' 12.7%, '학교체육시설' 8.8%, 문화센터 등 '지자체 및 공공기관 운영 시설' 4.6%, '직장 내 체육시설' 0.3% 순이었다. 남성도 공원 및 산 등의 '산책로' 비율이 48.5%로 가장 높았고, 이어서 '민간상업체육시설'(26.4%), '학교체육시설'(13.2%), '집에서 간단한 운동'(4.9%), '지자체 및 공공기관 운영 시설'(3.6%) 순으로 나타났으며, '직장 내 체육시설'이 3.2%로 가장 낮았다.



*조사기간: 2016년 9월 1일~9월 23일
 *만 15세 이상 인구 기준임.
 *조사시점을 기준으로 '운동을 한다'고 한 응답자에게 평소 주로 운동하는 장소를 묻는 문항임.
 *기타 항목에서 남성은 0.3% 나왔으나 여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제외함.
 *출처: 대전광역시(2016), 『2016 대전의 사회지표』 p310, 2016 대전시 사회조사 활용

'바쁘고 시간이 없어서' 운동하지 않는 대전여성 45.3%, 남성 57.2%

대전시 여성과 남성이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, 여성은 '바쁘고 시간이 없어서'(45.3%)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, 이어서 '귀찮고 하기 싫어서' 36.6%, '건강문제로' 12.9%, '할 수 있는 운동이 없어서' 2.6%, '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' 1.5%, '가까운 체육시설이 없어서' 1.1% 순으로 나타났다. 남성도 '바쁘고 시간이 없어서'라고 응답한 비율이 57.2%로 가장 높았고, 그 다음 '귀찮고 하기 싫어서'(30.0%), '건강문제로'(8.9%), '할 수 있는 운동이 없어서'(1.8%), '가까운 체육 시설이 없어서'(1.5%) 순이었으며,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'는 0.7%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.



*조사기간: 2016년 9월 1일~9월 23일
 *만 15세 이상 인구 기준임.
 *조사시점을 기준으로 '운동을 하지 않는다'고 한 응답자에게 운동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묻는 문항임.
 *출처: 대전광역시(2016), 『2016 대전의 사회지표』 p311, 2016 대전시 사회조사 활용

2017년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 교육워크숍

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2012년부터 성 주류화 전략 실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2016년 대전시 성평등지수 결과를 반영하여, 올해는 자치구별 골목길 보행자 안전이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. 오는 9월 5일에는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교육워크숍을 개최합니다.

일시 | 2017년 9월 5일(화) 13시
 장소 | 대전세종연구원 2층 대회의실

시간	프로그램	내용	강사
13:00~13:10	소통의 시간	• 모니터단 및 연구진의 소개와 워크숍 일정 안내	
13:10~14:00		• 성인지적인 모니터링이란? • 모니터링의 방법	임원정규 (대전여성단체연합)
14:00~15:00	정책 사업에 대한 이해	• 모니터링 대상 사업의 이해 (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시디자인)	심준영 (전북대학교)
15:00~16:00		• 『배려도시』를 중심으로 (선진국의 보행자 배려 사례)	변완희 (토지주택연구원)
16:00~17:00	성 주류화 제도와 모니터링	•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모니터링 사업 소개 • 모니터링 지표 소개	주혜진 (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)
17:00~18:00		조별 논의 및 질의응답	

*일정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대전시청 찾아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담당자 교육

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8월 29일과 30일, 양일에 걸쳐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담당자 중심으로 '찾아가는 교육'을 실시했다. 성 주류화 제도의 주체인 공무원들의 성인지와 성평등에 대한 감수성을 고양하는 교육은 이미원 도시와 젠더 대표와 임원정규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, 박민아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컨설턴트가 담당했다.



박민아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컨설턴트

임원정규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